

## 뱃속에

### 결에

### 빅 콜먼

#### 소개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요나와 큰 물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요나와 고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아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중에 폭풍이 몰아쳐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요나는 배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다. 후에 그분은 "마른 땅에서 토해"셨으며, 결국 니느웨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그분의 전파 활동으로 백성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2장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전체 챕터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나가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손아귀에 갇혀 탈출구가 없는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삶에 의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포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예!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요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 이 수업에 사용된 성구

요나 1장

요나 2장

잠언 6:16 – 19

사무엘하 21:15 – 17

시편 18:3-6, 16-19

출애굽기 20:3 – 6

고린도후서 5:18 – 21

#### "In The Belly"는 무엇입니까?

요나 1:1-2과 2:1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갇힌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고의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배"는 임사 체험입니다. 그것은 육체적,

감정적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짓눌려 있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요나의 경험과 비슷하게, 우리의 "뱃속에서의" 경험은 어둡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모든 것을 포괄할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도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산 채로 잡아먹혔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죽음은 단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깊이로 가라앉았다고 느낍니다. 삶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요나 2:3-5을 읽고 요나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이해하십시오.

최근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석구석에서 좌절감을 느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나는 포기해. 그냥 포기해요. 탈출구가 없어요."

*"뱃속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쳤나요? 다른 사람들이 "뱃속에서" 겪는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결정과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결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걸까?" 하고 궁금해한다.

당신은 당신의 "뱃속에서" 사건을 즉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여행한 후 얼마 후에야 물고기를 경험했습니다. 요나 1:1-3을 읽어보세요. 니네베는 이라크 북부의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아마도 스페인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고의적인 불순종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시스가 니느웨에서 약 2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기꺼이 불순종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즉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반대로 행동한 것이 언제입니까? 상황이 즐거웠는지 불쾌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겪었습니까? 당신은 불순종으로부터 유익을 얻었는가? 왜 불순종했는가?  
사람들은 왜 일반적으로 불순종하는가?*

**요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요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 유형, 즉 "뱃속에서"의 목록입니다.

-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함
- 성경 원칙에 대한 불순종
- 건전한 지혜에 어긋남
- 합리화에 기반한 결정(이미 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의 행동 정당화)
- 조작에 기반한 결정(상황, 사람 등)
-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에 근거한 결정
- "충동적인" 결정, 또는 열정이나 분노/분노에 근거한 결정
- 잠언 6:16-19에 열거된 죄 중 하나
- 두려움
- 걱정
- "헛된 상상"(당신이 상상한 생각과 사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동함)
- 괴로움

*요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결정이 당신을 곤경에 빠뜨렸습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결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뱃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결정 때문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 영적 원수들의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1:15-17을 읽어보세요. 다윗 왕의 이 "뱃속에서" 겪은 일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지칠 때까지 싸웠다. 그의 상태를 본 블레셋 사람 중 한 명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이 그를 구하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뱃속에서"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납치된 어린이들은 어떠한가?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은*

*어떠한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배우자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요점:** 때때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분리된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너의 부르짖음이 들리네

요나 2:1-10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 봅시다.

2절: 요나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부르짖음은 절박함, 진지함, 강렬함, 회개의 외침이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3-5절: 이 구절들은 요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묘사합니다. 다음 문구 (NIV에서)에 주목하십시오.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 나를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 바다의 심장부...
- 물살이 내 주위를 휘감았다...
- 파도와 파도가 나를 휩쓸었다...
- 휩쓸고 지나가는 물이 나를 위협했다...
- 깊은 곳이 나를 에워쌌다...
- 미역이 머리를 감쌌다...
- 산의 뿌리까지 나는 가라앉았다...
- 땅 밑의 땅은 나를 영원히 가로막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요나는 자신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황은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었다. 요나 2:6을 주목하십시오. 요나는 "영원히 갇혔다"고 느꼈지만, 이 구절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상태나 상황은 없습니다.* 시편 18:3-6, 16-19을 읽어보세요. 다했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요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당신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 태도가 전부입니다

위의 요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요나가 확실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7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분노나 조급함, 좌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완전히 포기한 곳이었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그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요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7절에서, 요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거룩한 성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체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뱃속에" 있을 때, 당신은 주님을 기억합니까... 거룩하신가?*

9절을 읽어 보세요.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을 바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했다. 이 모든 것에서 요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보다 우선시켰습니다.

**요점:** 우리 구원의 열쇠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위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환경보다 우선시켰는가?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슬픔과 후회와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러한 변화를 가로막는 것일까?*

### 당신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서 한 구절을 건너뛰었습니다 – 8절. 8절을 읽어 보세요. 이 구절은 다른 어떤 구절보다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거짓된 헛된 것을 보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린다. (킹제임스)

무가치한 우상에 매달리는 자들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니브)

거짓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와 사랑의  
친절의 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증폭됨)

당신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너를 구원하고 곤경에서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희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너의  
구원이냐,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는가, 아니면 당신의 은행 잔고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힘(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노력의  
근원입니까? 만족은 새로운 직업에서 올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직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인가?

**요점:** 요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해결책에 집착한다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돈, 세상의 것들, 또는 관계에  
우리의 희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 즉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의 은총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두는 곳은 당신의 우상이 됩니다* -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신의  
문제에 대한 인지된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해결책을 제공하시는 분 대신에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그분께 등을 돌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점:**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는 곳이 당신의 우상이 됩니다.

**요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3)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놓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돈, 직업, 구원이 아니라... 무.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에는 가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18-21을 읽어보세요. "화해한"이라는 단어는 "은혜로 돌아가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atallasso"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로 되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 심지어 시련 속에서도 말이다.

인간의 본성은 불편함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본성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아이의 행동을 바꾸도록 "격려"하기 위해 아이의 뒷모습에 가벼운 수준의 "불편함"을 가한다. 불행히도 어른들은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삶의 불편함은 우리가 변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카탈라소(katallasso)"하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새로운 친밀함의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 좌절, 불순종, 비통함, 절망으로 반응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처럼 포기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향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친밀감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말은 진리로 울려 퍼집니다.

"거짓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존경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와 사랑의 친절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다. (증폭됨)"

## 요약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당신이 원하는 시련으로부터의 해방보다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